

올바른 길 일러주는 어린이책의 나침반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고른 좋은 책 소개... 독서교육의 사례도 다뤄

어린이 독서 지도에 도움을 주는 책이 여러 권 나왔다. 어린이책의 밀림 속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이런 책들은 지금까지 10여 종이 출간되었는데,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에는 자녀교육과 어린이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자녀들 책을 고르면서 얻은 경험을 담백한 어조로 전하는 책과 '어린이를 보는 관점'을 다룬 굵직한 번역서가 눈에 띈다.

비평과 실용적인 안내

번역가 최윤정씨가 쓴 《책 밖의 어른 책속의 아이》(문학과지성사)는 "희망과 정열의 흔적을 보지란 쉽지 않고, 공공연한 회의와 절망"만이 가득한 어린이 독서문화에 대한 시평을 묶었다. 번역가 입장에서 어린이책 번역과 기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개미와 베짖이〉를 듣고 베짖이를 붙잡혀하는 아이의 반응에 맞닥뜨리고 국내에 소개된 이솝이야기를 찾아 읽은 저자는, 이솝의 우화를 시대에 맞게 변주한 라퐁텐의 우화와 레오 리오니의 동화까지 비교한다. '교훈'과 '문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대목을 통해 어린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를 간접적으로 전한다. 예문을 들어가며 외국책의 잘못된 번역과 과잉 친절을 자성한 부분이 특이하다.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엮은 《동화, 이렇게 보세요》(웅진)와 그 회장을 맡아왔던 광정란씨의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될까》(차림), 번역서인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한림)는 독서지도 경험과 실제 비평이 어우러진 실용성이 강한 책이다. 즉시 서점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기준과 추천도서목록이 특징이다.

1991년부터 95년까지 '동화읽는 어른' 모임의 성과물을 묶은 《동화, ...》는 어린이책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분야별로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한 도움말을 붙였다. 이 책이 제시한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기준은 어린이를 삶의 주체로 보는가, 일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정서에 맞는가, 통일을 지향하는가, 꿈을 심어주는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가, 정확한 지식

어린이 책을 고르기 위한 안내서

- 어린이와 그림책/마쓰이 다다시(이상금)/샘터
- 그림책, 읽어주세요/조준영/웅진
-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마쓰이 다다시(이상금)/한림
- 어린이의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김세희·현은자/서원
- 책나라로 가는 길/김수남/현암사
- 책밖의 어른 책속의 아이/최윤정/문학과지성사
- 부모를 위한 책 자녀를 위한 책/이은애/윤컴
- 우리동화 바로 읽기/이재복/한길사
-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짐 트렐리즈(이일남)/오리진
- 동화, 이렇게 보세요/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웅진
-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될까/곽정란/차림
- 옛이야기 들려주기/서정오/보리
-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권할까/서울교사협회 엮음/둘레개
- 어린이 책 목록/서당 엮음/논장
- 어린이 책의 역사/준로 타운젠드(강무홍)/시공사

을 주는가 등 8가지다.

《어떻게 하면 ...》은 자신이 실제로 해온 독서교육 사례에 중점을 뒀다. 독후감을 쓰는 소극적인 독서교육에서 탈피해 그림그리기, 독서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읽기의 재미가 배가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일본의 아동도서전문출판사 후쿠이칸의 회장인 마쓰이 다다시가 쓴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한림)는 그림책 입문서. 풍부한 사례로 그림책의 선별기준을 설명했는데, 많은 언어체험과 상상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논지다. 그림책을 처음 접하는 유아에게는 "보들보들 보들님과 보들 아줌마, 두 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까"처럼 리듬감 있는 문장이 좋다.

이 책들은 각각 추천도서도 실었다. 《동화, ...》는 본격적인 비평문 11편을 실었고, 《어떻게 하면 ...》은 연령별로 책의 내용과 간



단한 추천이유를 밝혀 놓았다.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는 원저 추천목록에 일본어·외국어로 올라 있는 책의 국내 번역본을 일일이 찾아 실었다.

어린이를 보는 눈이 중요

《부모를 위한 책, 자녀를 위한 책》(윤컴)은 소아과 의사인 이은애씨가 자신이 직접 읽고 좋은 책이라 생각했던 책 84권을 소개했다. 《아기를 훌륭하게 키우는 책》(F. 닷슨),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돈딩크메이어) 등 부모들이 읽어야 할 책이 대부분이지만 어린이책 목록도 보인다. '재미와 교육적인 효과를 고루 갖춘 책'을 기준으로 〈맹꽁이 서당〉 시리즈 등의 만화에서 철학의 향취를 느끼게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톨스토이)까지 모두 29권을

소개하고 있다.

책을 골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보는가'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이다. 1840년 어린이문학이 탄생한 이래 1945년까지 영어권 아동도서를 통해 '어린이를 보는 관점'의 변천을 담은 《어린이책의 역사》(전2권, 시공사)가 우리에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린이문학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단순히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자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첫문장은 어린이문학을 성인문학의 밑자리에 놓곤 하는 우리 출판계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 이현주 기자

화제의 책

육아이론과 실천사례의 접목

이호영 외 엮음 《현장실무교육백과》(전12권)

영·유아 교육을 맡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현장실무교육백과》가 유아동산에서 출간됐다. 육아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접목시킨 사전 형식으로 꾸민데, 놀이지도, 언어지도, 0~3세 영·유아를 위한 책의 세 주제로 모두 12권이다.

어린이 성장의 영양이고 수단인 '놀이지도'는 놀이에 대한 발달이론에 맞춰 기능놀이→구성놀이→상징놀이→게임으로 구성했다.

'언어지도'는 유아들의 문자 이해력 지도와 쓰기·읽기에 역점을 두었는데, 교사들은

어린이와 마음의 교류를 나누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0~3세 영·유아를 위한' 책은 영양·응급처치·건강관리·질병·사고예방 같은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일을 주로 다뤘다.

〈이현주〉

유아동산/A4/각 186면 내외/각 20,000원

